

박상우 장관, 나경군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 임명장 수여

- 변화된 여건에 걸맞은 수변도시 조성과 새로운 비전 제시 당부 -

-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18일(월)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나경군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아래 사항을 특별 지시하였다.
- 박 장관은 나경군 새만금개발공사 신임사장에게 “새만금은 현 정부 출범(’22.5월) 이후 10.1조원에 달하는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이루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중요한 시기”임을 강조하면서, “탁중한 사명감으로 새만금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 - 첫째, “새만금청이 대규모 투자유치와 같은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만큼, 공사 또한 기관의 목표와 역할을 재정립하고,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 - 둘째, 공사의 첫 번째 개발사업이자, 새만금의 첫 번째 도시인 “수변도시 조성사업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것”을 지시하였다.
 - 특히, 수변도시의 배후도시 기능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통합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“기업지원에 특화된 도시, 사람이 모이는 미래 도시가 되도록 사장께서 직접 챙겨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 - 셋째, 새만금개발은 주부무처-개발청-지자체-공사 간 유기적인 협력이 있어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“사업수행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할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마지막으로, “그간 사장직이 장기간 공석으로 유지되었는데, 취임 후 조직 안정에 힘쓰고, 인사채용·복무관리 및 직원의 투기방지 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
2024. 3. 18.

국토교통부 대변인